안되는 것도 고정됨이 없기에 금방 돌아간다, 수레바퀴 돌아가듯

☞ 19면에서 계속

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밥을 굶어도 허허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요. 나로 인해서 옆에서 운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에다 놓고 가면 거기까지 밝게 불이 들어와서 우는 것을 뚝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번연히 알면서도 못 믿는 사람, 그건 배냇병신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 보시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져 보세요. 가게를 하는데 영 되는 노릇도 없고 또 가난하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언제나 그렇게 생활을 해 보세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금방 돌아갑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 쳇바퀴 돌아가듯.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는데 '고정됨이 없다, 공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잡숫는 것도 고정되게 김치만 잡숫는 분도 없고 빵만 잡숫는 분도 없어요. 어떤 때는 이것 먹다가 어떤 땐 저것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고정되게 한 가지만 잡수십니까? 만남도 그렇고 가고 오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게 다 고정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 생활이며 고정된 게 없으니까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병이 생겨도 내가 먹는 음식이나 그런 게 모두가 약입니다. 밥도 약인 걸요. 빵도 약이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거 전부 약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조절하면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너밖에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믿어 준다면, 아마 사람한테 그렇게 믿어 준다 해도 생명을 걸고 바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그렇게 진실하게 믿어진다면 모든 일체 생명이 다 같이 호응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몸을 이끌어 가는 내 속의 오장육부의 모든 세포에 들어 있는, 전자에서부터, 바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과로 인해서 업식이 뭉쳐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하게 하든 선하게 하든 바로 내 몸을 이끌어 가는 친구입니다. 한마음의 친구요.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게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내 몸이 지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다, 누구다, 내 거다 이런 생각도 마세요. 내 몸도 내 게 아니니까요, 각자.

그러니 내 몸속에 있는 그 생명들도,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체 놓는다면 악업이나 선업이 다 자동적으로 녹아 버리고 바로 그 생명들이 바로 보살로 화해서 여러분의 털구멍으로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간다 이겁니다, 오히려 나쁘게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아하! 이렇게 신성하고 맛 좋은 것은 난 처음 봤어. 처음 먹어 봤어. 처음 느껴 봤어.' 이러고 알게 되는 거지 남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스스로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정말이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주를 다 집어삼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 나로 인해서 옆에서 운다 하더라도
> 내가 주인공에 놓고 가면 거기까지 불이 밝게 들어와서
> 우는 것을 뚝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질문 출가 수행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딪치면서 공부하는 것도 큰 수행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중생들의 고통도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스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사실상 시집 장가를 안 간다 이러한 뜻은 뭐냐 하면 인생이 한 철이라, 영화배우들이 살다가 막을 내리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한 생, 한 철을 살다가 모든 것을 연결 지어서 착을 두고 사랑한답시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세세생생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왜냐하면 마음은 벌써 자기 육신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공기 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공기 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한 생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다 얻어서 다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둘이 아닌 까닭에 수없이 거쳐 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 온 그 자체의 관계를 수없이 해 나왔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그 고생을 하고 먹히고 먹고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정신을, 정수를 뺏기고 산다. 또 뺏어먹는 놈이 있다. 뺏기고 먹고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습을 갖다가, 즉 말하자면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정수를 빼다가 놓고 연구 대상을 삼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급하냐 이겁니다, 사람 사는 게.

자기 하나만이라도 벗어나야 자기가 인연 됐던 그 무리들을 다 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주 투철하죠. 칼을 뽑았으면 이 칼이 다 건질 수 있는 칼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느냐. 투철하게 양면을 놓고 그냥 자기를 바숴 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군더더기를 붙여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살얼음판을 딛고 가느냐, 또는 빌딩에 불이 났는데 지금 그 구멍을 찾아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이 나서 구멍을 찾는데 장가들 생각이고 시집갈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매사에 삐걱거립니다

질문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사는데 매사에 삐걱거립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공부 재료로 삼아야겠지요?

답변 지금 여러분은 물질세계에서 살아나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혼백이 영원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금 생각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차원이 그것밖엔 안 됩니다. 여기서 살아나갈 때에 그 의식을 고대로 죽어서도 가지고 있으니 물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불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죽어서도 그런 게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빠져 죽을까 봐.

그래서 그 길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불가에서는 "건너가세, 건너가세" 이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는,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건너갈 수가 없죠, 물질세계로 살아왔으니까. 그 의식이 내가 강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환상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해 놓고 강을 못 건너가지, 불바퀴 속을 못 건너가지, 그냥 모든 그 마구니 있는 데를 못 건너가지, 독사들 있는 데를 못 건너가지.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나가면서 그런 물질세계의 차원만 봤기 때문에 바로 영계가 생기고, 건너가지 못하는 혼백들이 떠돌면서 그 자기 가정에서 영 떠나질 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것밖엔 모르니까. 그러니 까치 동굴에도 들어가고 그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의식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저 사람으로 두 부부가 사는 데를 들어가야 할 텐데 그걸 못 보고 못 들으니까, 그저 뱀이든지 두꺼비든지 뭐, 어느 거든지, 소든지 돼지든지 그런 데에, 잠깐 그 두 부부가 되는 데에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모르고서 그 모습을 타고 이 세상에 나오면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행도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행동을 하지요. 어떤 때 어느 누가 "아이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죠?" 그러면 "얘,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모습을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 행동을 해야지 그럼 어떡하니?" 내가 그럽니다. 태어났으니 어떡합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행을 해야 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행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지금 자기 모습을 보지 않고 자기 분수를 보지 않고, 자기 차원을 보지 않고 '내가 뭐, 여자라도 동등해!' 하고 그냥 막 저거 한다면 그 집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숭배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부드럽게 하고, 못났든 잘났든 그 마음이 진정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다복할 겁니까? 그리고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서로들 배신하고 서로들 엇각 나고 서로들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삽니까?

그러니깐 여러분이 그 의식을, 지금 모든 거를 놓아라 이 소리죠. 안되는 거는 '그저 잘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밖에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병이 나도 거기서밖엔 고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밖엔 할 수 없다.' 하고 맡겨 놓고, 또 잘되는 거 감사하게 거기 맡겨 놓고, 이렇게 반복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맡길 사람도 없어집니다. 맡길 것도 없고, 맡기지 않을 것도 없고 그냥 살아나가는 게 아주 그대로 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전생을 무시하고, 현생의 그 몸뚱이만 알고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 자기 전생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 전생을 찾아야 진짜 공부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 전생이 그냥 지금 후생 자기, 자기 몸뚱이를 이끌고 가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어떡하든지 고생 안 시키려고 앨 쓰고 그러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즉 부처님의 그 자비한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전생이거든요. 우리 몸뚱이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믿음을 갖고 자기 근본, 전생의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겨놔 버리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걷는 순간이
끈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켤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